



Esteria

시나리오 & 스토리보드 설정

Team 더블 나인 식스(996)

작성자: 김 명 섭

1 시나리오

#1 누워 있는 방안(낮)

침대에서 모바일 게임을 하는 플레이어.

플레이어의 엄마 : (격양된 목소리로)너는 매일 핸드폰 게임만 할거면 나가서 알바라도 해!

플레이어 : (당당하게)하! 나는 세상을 구하고 있다고요!

플레이어의 엄마 : (체념한듯이)이젠 정신나간 소리까지 하는구나.. 정말 어쩌다 내 아이가 이렇게 된 걸까?

플레이어 : (문을 쿵 닫으며)잔소리 할거면 안들으래요!

플레이어의 엄마 : (단념한듯이)넌 이제 용돈이랑 밥 없어!

플레이어(독백) : 하.. 전역한지 얼마나 됐다고... 이제 겨우 5일인데 나도 게임하면서 몇일은 더 쉬고 싶다고..

나도 게임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지킨다면 알바 하라고도 안할건데...

돌아 눕던 플레이어가 침대 옆으로 핸드폰을 떨어트린다. 핸드폰을 찾기 위해 침대 밑을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한 포탈이 있다.

플레이어 : (어이없다는 듯이)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는 허상이 보이는 건가? 하하 이게 뭐냐고!

플레이어가 포탈에 손을 대는 순간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빨려 들어가게 된다.

#2 어딘지 알 수 없는 길 위(낮)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이 세계에서 눈을 뜬 플레이어

플레이어 : 하 이게 뭐야.. 밤새 게임을 해서 잠시 기절한건가?

(옆을 둘러보며)근데 여기 내 방안이 아니자나!

(당황한듯이)잠시만 내 옷이 왜 이래? 내 팔다리는 왜 이런거고? 진짜 이 세계가 존재하는 거였어?

의문의 여성 : 까아악!!!!

눈앞에 보이는 저택안에서 괴상한 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려온다.

플레이어 : (의구심을 가지며 몸을 일으키며)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거지? 내가 도와줘야 하는 건가?
아니 내가 도울 수 있긴 한 걸까?

저택 방향으로 이동하며

플레이어 : (투덜대며)신체도 바뀌어서 제대로 걷기가 힘드네...

(자신감에 찬 말투로)그래도 뭔가 내가 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래 해보는거야!

#3 저택 안(낮)

저택으로 플레이어가 들어오자 저택의 대문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닫혀버렸다.

말라카르 : (의문의 남성의 멱살을 잡고) 빛의 목걸이를 내놓거라...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온 거니 당장 가지고 오거라

의문의남성 : (단호한듯이)절대 너 따위에게 넘겨줄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말라카르 : (가소롭다는듯이)그럼 널 죽인 뒤에 가져가도록 하겠다!

의문의 남성은 죽음을 직감한지 모든 걸 체념하고 고개를 떨구다 플레이어를 발견하게 된다.

의문의 남성 : (놀란듯이)빛...빛의 기사님??

말라카르 : (어이없다는 듯이)죽기 직전에 환각이라도 보이는건가?

말라카르는 의문의 남성의 시선을 따라간다. 시선을 따라가다 보니 플레이어가 눈에 들어오게 된다.

말라카르 : (당황하며)진짜 빛의 기사자나? 어떻게 된거지?? 근데 힘이 아직은 없어 보이는구나? 지금 당장 죽여주마.

말라카르가 어둠의 스킬을 사용하였지만 알 수 없는 빛의 영혼들이 방어 결계를 형성해 주었다.

플레이어(독백) : (하얀결계를 만지며) 이게 뭐지? 내가 빛의 기사라고?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지?

말라카르 : (공격이 막혀서 어이가 없다는 말투로)꼴에 빛의 기사라 이건가? 너가 힘을 얻으면 내가 위험에 빠지겠구나 널 영원히 여기 봉인하도록 하겠다.

말라카르는 하늘로 날아가면서 어둠의 봉인 주술을 사용하게 되었고 순식간에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였다. 봉인 주술이 완성된 후 말라카르는 사악한 표정으로 플레이어를 바라보고 홀연히 사라지게 된다.

플레이어는 피를 흘리고 쓰러진 의문의 남성에게 달려간다.

플레이어 : (다급하게 절규하며)아저씨!! 아저씨!! 정신차려요!! 여기 병원이 어디있어요? 내가 데려다 줄게요! 정신차려요!! 아저씨!!

의문의 남성 : (피를 토하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괜찮습니다. 빛의 기사님이시여... 저는 알데비온 가문의 베르디올이라고 합니다. (쿨럭) 저희 가문은 빛의 기사님이 돌아오면 빛의 기사의 목걸이를 전해주라는 임무를 부여받았었습니다. (쿨럭쿨럭)

플레이어 : (흐느끼며)베르디올님 더 이상 말하지말아요!! 얼른 병원에 데려가 줄게요!!

베르디올 : (인자한 미소로)괜찮습니다 플레이어님..저는 얼마남지 않은 것 같아요. 병원이라는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고치는 곳이라면 여기서 뛰어가도 30분입니다.(쿨럭쿨럭) 제 임무는 완수하고 눈을감게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쿨럭쿨럭쿨럭)

플레이어 : (봉인된 결계를 향하며)베르디올님 반드시 제가 살려드릴게요!!

플레이어는 어둠의 결계에 손을 대지만 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아서 봉인을 해제하지못한다.

베르디올 : (더 작은 목소리로 빛의 목걸이를 꺼내며) 플레이어님 이것을 받아주세요!(쿨럭)

플레이어 : (다급하게 달려오며)이것은 무엇입니까?

베르디올 : 빛의 기사님이 착용하면 빛의 힘을 다룰 수 있게 되는 장비입니다... 저희는 사람마다의 오라를 느낄 수 있어서... 당신에게서 빛의 오라를 보게 되었고, 당신이 빛의 기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쿨럭) 이제 가져가십시오.. 기사님이시여... 마지막으로 기사님의 존함을 알 수 있을까요?

플레이어 : (흐느끼며)베르딕입니다...

베르디올 : (몸의 힘을 빼면서)베르딕님 부디 이세계의 어둠을 정화시켜주십시오...

베르디올은 끝내 숨을 거두게 되었고, 한동안 베르딕은 한손에 빛의 목걸이를 쥐고 절규하고 있다.

베르딕 : (목걸이를 착용하며)베르디올의 죽음을 헛되게 할 수 없어!! 죽는한이 있어도 꼭 복수 할거야!! 어둠을 정화할거야!!!

목걸이를 착용하니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온다.

??? : (신성한 목소리로)당신만을 기다렸습니다. 빛의 기사님이시여... 이제 빛의 힘을 운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힘의 크기를 올려보세요... 저희는 기사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떠한 형태로도 다시 등장할 것입니다. 무운을 빌겠습니다...

베르딕 : (다급하게)잠시만!! 잠시만 기다려!! 아직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단 말이야!!

베르딕의 외침에도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이에 결심한듯 베르딕은 어둠의 결계를 풀기위해 시도를 하게 되었고, 아까와는 다르게 어둠의 결계에 빛의 결정들이 뭉쳐져서 길이 이어져 있었다. 그 길의 끝에는 알 수 없는 퍼즐이 있었지만 옆에 하얀 손이 나타나더니 퍼즐을 풀어주었다. 그 후에 어둠의 결계는 풀리게 되었고, 다시 맑은 하늘이 찾아왔다.

베르딕 : (결심한듯이)그래 밖으로 나가서 이 상황을 어딘가에 알려야 할 것 같아!!

닫혔던 대문을 밀어봤지만 열리지 않았다. 그러자 밑에 빛의 결정들이 경로를 알려주듯이 한줄기로 베르딕을 인도하고 있었다.

#4 뒷문

베르딕 : (놀란듯이)이 문앞에서 빛의 결정이 끊겼어... 이문으로 나가라는 건가? 그래 한번 나가보는 거야?

힘차게 문을 열자 문밖에는 광활한 자연이 펼쳐져 있었다. 신기한듯이 베르딕은 문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압도적인 크기의 풍경에 넋을 놓고 감상하고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다 보니 뒤에 베르딕이 열고 나온 문과 저택은 사라지고 없었다.

베르딕 : (어안이병병하게) 뭐야 문이 어디간거지?? 이게 무슨 상황이지?

아린 : (발랄하게) 모험가님이신가봐요~ 세상이 많이 흥흥한데 무기는 어디다 두고 오셨어요!! 이거라도 들고 다니세요!! 잠..잠시만!! 이 기운은?! 빛...의 기..사!!!







베르딕 : (낡은 칼을 받으며) 이걸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네요..칼을 다룰줄 모르거든요...







아린 : (통통튀는 말투로)진짜 기사님이자나! 어떡해 어떡해!! 나 빨리 자랑하러 가야겠다! 기사님 어서 가요!!







베르딕 : (비장하게)그래요! 어둠을 몰아내러 가보죠!!







2 스토리보드






Cut	Video	Context	Audio	Time
No.1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게임을 하는 주인공		
No.2		주인공과 엄마의 언쟁이 오간다.		
No.3		침대옆으로 휴대폰을 떨어트리는 주인공		
No.4		침대 밑에서 의문의 포탈을 발견		
No.5		포탈을 만지다 빨려들어가는 주인공		
No.6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달라진 풍경에 놀라는 주인공		

Cut	Video	Context	Audio	Time
No.7		자신의 팔과 다리를 훑어 보고 일어서보는 주인공		
No.8		어디선가 비명소리가 들린다. 비명소리가 들린 방향으로 가보니, 저택이 보인다.		
No.9		저택안으로 황급히 뛰어들어가는 주인공		
No.10		“광”하고 문이 닫히고 눈 앞에 말라카르가 베르디올의 먹살을 잡고있다.		
No.11		베르디올이 주인공쪽을 바라보게되고, 말라카르도 뒤이어 돌아보게된다.		
No.12		말라카르는 베르디올을 놓고, 주인공을 향해 어둠의 스킬 공격을 하게된다.		

Cut	Video	Context	Audio	Time
No.13		주인공은 알 수 없는 빛의 베리어를 내뿜으며 공격을 방어하게 된다.		
No.14		당황한 말라카르가 어둠의 결계를 걸어 저택과 함께 주인공을 봉인하려 한다.		
No.15		봉인에 성공한 말라카르는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날아가게 된다.		
No.16		주인공은 베르디올에게 달려간다.		
No.17		주인공은 베르디올의 이야기를 듣고있다.		
No.18		주인공은 어둠의 결계를 해제하려 시도한다.		

Cut	Video	Context	Audio	Time
No.19		어둠의 결계를 해제하지 못하여 어찌할줄 몰라한다.		
No.20		다시 베르디올에게 다가가는 주인공		
No.21		베르디올이 목걸이를 꺼내어 건내준다.		
No.22		베르디올이 숨을 거둔다.		
No.23		주인공은 한손에 목걸이를 쥔채 절규한다.		
No.24		목걸이를 착용하는 주인공		

Cut	Video	Context	Audio	Time
No.25		의문의 목소리가 들리는 주인공		
No.26		목소리의 의미를 해석하려고 고민하는 주인공		
No.27		다시 어둠의 결계로 향하는 주인공		
No.28		봉인 해제에 성공하는 주인공		
No.29		바닥에 반짝이는 무언가가 주인공을 인도한다.		
No.30		뒷문으로 향하는 주인공		

Cut	Video	Context	Audio	Time
No.31		뒷문을 열고 나가는 주인공		
No.32		주위를 둘러보는 주인공		
No.33		등 뒤에서 아린이 등장하며 주인공과 대화		
No.34		낡은 검을 아린에게로부터 건내 받는 주인공		
No.35		주인공과 아린이 광야의 별판으로 향한다.		